

2019 만화 해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사업 서면평가 종합심사평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국가를 타깃으로 한 19개의 신청과제들을 보며 한국 만화·웹툰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심사에서는 IT, 마케팅, 만화 등 분야별 총 7인의 평가위원을 구성해 수행기관, 참여인력, 사업비, 과제기획력 등 총 4개의 평가지표를 토대로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업목적과 부합되고 향후 발전모습이 기대되는 과제도 있었으나, 플랫폼 운영 경험이 없으며, 과제기획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협약기간 내에 신규 구축이 가능할지가 의문인 과제도 있었습니다.

평가위원 최고점과 최저점 각 1인을 제외한 평균으로 평가점수를 도출하여 평가점수 70점 이상 총 11개의 과제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서류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과제는 발표평가에서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의견을 남겼습니다. 특히 사업비 편성 내역, 플랫폼 구축 또는 운영 가능 여부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과제들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지원해주신 모든 분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